

실업뉴스

The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News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제787호



10월 16일 정기총회에서 신재균 현 본부협회 회장이 압도적 지지 인준을 받아 재선됐다. 제 26대 회장이 된 신 회장은 당선되자마자 연이어 총회를 진행했다.(관련기사 4-7면) 2019-2020 회계연도 정기총회(Oct.16, 2019)



www.okba.net Publisher : Jae Gyun Shin / Publication Mail Agreement No : 41140510
Return Undeliverable Canadian Address to :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169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Tel.(416)789-7891 Fax.(416)789-7834

PRO-LINE

POINTSPREAD



PRO-LINE

PROPS

빅 히트, 통큰 상품 그리고 더욱더 큰 당첨금!

미식축구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가을에는 빅 리그가 시작되면서 여러분의 매장은 더욱 바빠집니다. 지난해의 경우, 미식축구 한 종목에서만 소매업자에게 지급된 수수료가 약 **\$380만**에 이르렀습니다!

루칸의 트로이 씨는 POOLS 게임에서 Football Pools Card #87 로 \$561,303을 땀습니다. 그는 루칸의 메인스트리트에 있는 Lucan Convenience 에서 이 복권을 구매했습니다.

그는 경기를 시청하고 휴대폰의 OLG 복권 앱(Lottery App)으로 복권의 당첨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면에 뜬 것을 믿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꺾다가 다시 확인했죠.” 그가 웃으며 말합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스포츠 베팅 한도

OLG의 스포츠 베팅 한도는 소매업자당, 스포츠 복권 상품당, 고객당 (또는 단체고객 당) 1일 \$100 이라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이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스포츠 복권 판매 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복권단말기 운영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소매업자정책매뉴얼(Retailer Policy Manual) 제4.13절 스포츠 베팅 한도(Sports Wagering Limits)를 참고하십시오.

OLG는 DART(Data Analytics and Retrieval Technology) 시스템을 사용하여 복권단말기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이 신속한 모니터링 및 보고 능력은 저희 OLG가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있을 수 있는 소매점을 직접 방문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OLG는 스포츠 복권 상품 거래를 매일 감시하며, 베팅 한도가 초과될 경우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장의 복권 담당 종업원이 이 정책을 숙지하고 절대적으로 준수하도록 하십시오.


Play. Smart
Knowledge you can bet on.



 Ontario's
Lottery &
Gaming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 OKBA 회장 : 신재균 (Jae Gyun Shin)
OKBA 부회장 : 송명현 (Myeong-Hyeon Song)
- 홍보팀 : 실장 김광일 (Ted Kim) tongilisysj@yahoo.com
- 사업개발팀 : 이주녕 (Brian Lee) brianjn1108@okba.net
- 회계팀 : 김세환 (Justin Kim) accounting@okba.net
- 디자인팀 : 현미영 (Mimi Hyun) mimihyun@okba.net
- 본부협회 : Tel (416) 789 - 7891 / Fax (416) 789 - 7834

- 이사회 : 이사장 이두승 / 부이사장 신영하
- 감사위원회 : 류승진 / 이만석 / 장육용
- 분과위원회 : 장학 분과 / 회칙 분과 / 특별사업 분과
상벌분과 / 선거관리 분과
- 지구협회 : < 광역 토론토 지구협의회 >
(ABC 순) Etobicoke 회장 이두승 (416)895-1277
Newmarket 회장 금동진 (905)836-6429
North York 회장 방성덕 (416)221-7091
Peel 회장 이수봉 (905)813-1333
Richmond Hill 회장 김대용 (905)471-8079
Scarborough 회장 엄종호 (416)759-4503
Toronto East 회장 김종범 (416)363-9404
Toronto West 회장 김재숙 (416)975-0365
Weston & York 회장 조용상 (416)604-3116
< 남서부 지구협의회 >
Brant County 회장 김종학 (519)756-0099
Halton & Hamilton 회장 오재근 (905)825-8373
London 회장 오세경 (519)432-6672
Niagara Falls 회장 김흥기 (905)354-1313
Waterloo 회장 최상경 (519)579-8130
Windsor 회장 윤문성 (519)326-1832
< 동북부 지구 협의회 >
Durham 회장 이현식 (905)579-2500
Huronian 회장 배종민 (705)436-2248
Kingston 회장 이강정 (613)967-9998
Owen Sound 회장 허창훈 (519)323-4311
Peterborough 회장 이경석 (905)373-0569

K.B.A. 협동조합

- K.B.A. 운영 이사장 : 신영하 (Youngha Shin)
K.B.A. 부이사장 : 심기호 (Kenny Shim)
 - K.B.A. 총괄부장 : 권혁선 (Hyuk Sun Kwon)
 - K.B.A. 사무장 : 배 줄리아 (Julia Bae)
 - K.B.A. 협동조합 사무실 : Tel (416) 789 - 7544
Fax (416) 789 - 5013
 - K.B.A. 협동조합 매장 : Tel (416) 867 - 1444
-
- K.B.A. 운영이사 : 김대영 (Dae-Young Kim)
(가나다 순) 송명현 (Myeonghyeon Song)
신재균 (Jae Gyun Shin)
이두승 (Doo-Seung Lee)
이만석 (Man Suk Lee)
허창훈 (Chang-Hoon Huh)
 - K.B.A. 감사 : 백사열 (Sah-Yeal Paik)
(가나다 순) 장해민 (Hae Min Jang)



www.okba.net
www.okbacanada.com

온라인을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C O N T E N T S

- 04 - 07 / 신재균 회장, 2기 임기 시작
- 08 / 편의점 술판매 이슈, 신회장과 조장관 독대
- 09 / 2019 세계한인회장대회 성대히 개최
- 10 / 협동조합 주주총회 출석 위임장
협동조합 100불 보통주 환급
- 11 / KBA 협동조합 2019년 주주총회 공고
- 12 - 13 / 주유 / 세차 업계의 4대 관심사
- 14 - 15 / 이민 물결, 캐나다 음식 미래를 바꾸는 중!
캘거리 공항 7-Eleven 2개 매장 오픈
- 16 / 애국심에 베팅받은 일본맥주
- 17 - 18 / 패스트푸드체인의 소매유통망 뚫기 경쟁
여왕의 연설에 영국편의점협회 관심
- 19 / DIRECTORY
- 20 ~ 23 / K.B.A. 협동조합 11월 스페셜

신재균 회장, 2기 임기 시작

10월 16일 정기총회에서 97% 지지 인준



▲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선관위원장. 10월 16일 정기총회에서 정.부회장 인준과 이사/감사 인준 투표가 동시에 있었다.

본부협회 현 신재균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신 회장은 임기 2년의 1기를 끝내는 날인 지난 10월 16일(수)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인준 투표로 재선돼 2기 임기를 같은 날 동시에 시작했다. 차수로는 제 26대 본부협회 회장이 됐다.

이날 정기총회는 예.결산 최종 심의 의결과 내.외부감사, 정관과 선거제 개혁 등 중요한 의제를 뒤로 미루고 정.부회장 단독후보 인준과 6명의 이사 및 3명의 감사 선임을 회순 앞으로 배치해 가장 큰 관심사부터 정리하고 회의를 진행토록 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치러진 신재균 회장 후보(*부회장 후보는 현 송명현 부회장)는 총 투표자 58명 중 56명의 인준 찬성을 얻어 재선됐다. 경선과 단독후보를 모두 포함해 97% 지지라는 역대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

협회 역사상 자체적으로 최초 실시한 우편투표에 의해 지난 2017년 경선을 거쳐 당선된 신 회장은 이번의 압도적인 지지를 발판으로 향후 2기 임기 2년동안 부담없이 협회를 이끌 수 있게 됐다. 지난 8월 19일(월) 동포 일간지 두곳에 후보 등록 공고를 냈고 8월 28일까지 후보 등록 마감기한이었으나 신회장 이외에 경합을 치를 후보 등록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선거제 개혁 규정은 단독 후보인 경우는 총회 인준 과반을 얻도록 하고 있고 이날 정기총회에서 이를 충족시킨 것이다.

선거제 개혁 12조(단독 후보의 경우)

1항: (과반수 인준) ... 단독 후보인 경우 선거실시없이 해당연도 정기총회에서 재석인원 과반수 찬성의 인준을 받아 당선을 확정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BROKERTEAM
INSURANCE



박효진(Roland Park)
Cell. 416-985-5287

Main : 905-770-8828
Fax : 905-770-8851
roland.park@brokerteam.ca

실협 단체보험

협회 역사상 본부협회 회장으로 나선 단독 후보 사례는 이번까지 모두 7 차례였다. 이 중 한 건은 인준 부결이고 또 한 건은 인준 절차가 없이 당선 됐다하여 법정 소송으로까지 비화돼 법원이 무효시킨 바 있다.

<역대 단독후보 인준 투표 결과>

연도	총회인준 결과	비고
1989년	가결	
1991년	가결	
1997년	부결	후보등록 재공고 후 경선에 의해 제 3의 인물이 당선
2011년		인준절차없이 무투표 당선을 주장했으나 법원판결로 무효
2013년	가결	재선 출마
2015년	가결	
2019년	가결	재선 출마. (10월 16일 정기총회에서 인준 가결)

이날 정.부회장 인준 투표는 6명의 이사와 3명의 감사에 대한 인준 투표 까지 병행했다. 투표용지를 회장 인준과 이사/감사 인준용으로 2매를 동

시에 배부해 한번의 투표행위로 두가지 인준을 다 처리토록 한 것이다. 종래에는 정기 총회에서 12명의 직선이사를 선출해왔으나 협회 슬립화를 명분으로 12명의 직선 이사를 6명으로 축소하는 정관개정이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졌다. 축소된 6명도 소위 말하는 쪽지 돌리기의 관행을 타파하지는 취지에서 3개 협의회별로 2명씩 할당해 추천의 조율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정.부회장과 마찬가지로 후보 등록 기간을 거쳤으며(9월 25일 ~ 10월 7일) 후보 등록 마감일인 10월 7일 등록한 후보는 지구협의회별로 할당된 인원수를 딱 맞게 충족시켰거나 미달이었다. 결국 후보 전원에 대해 인준 투표가 치러졌으며 58명이 투표해 3개 협의회 후보 모두가 95% 이상의 지지를 얻어 선출됐다. 인준 받아 선출된 지구협의회별 이사와 감사는 다음 표와 같다.

지구협의회 구분	이사	감사
남서부	김경선(나이아가라), 류무열(워터루/키치너)	류승진(나이아가라)
동북부	최영찬(피터보로), 이성호(듀람)	장육용(오웬사운드)
GTA	신영하(필), 김학용(리치몬드힐)	이만석(스카보로)

일체형 연동 포스시스템

원솔루션과 함께하면 **빠르고, 간편하고, 저렴합니다!**

LCBO READY!!

- ALL LOTTERY TICKET SCAN
- DEBIT MACHINE 연동



Debit & ATM and POS system

www.1solutions.ca / info@1solutions.ca Toll Free.1(888)554-7355 Korean(ext4) Direct Line.(905) 560-4511. (416)900-7533 Fax.1(888)554-0409



▲ 이사와 감사 후보들이 합동으로 연단 앞에 나와 회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동북부가 감사 후보를 내지 못해 할당 인원이 미달된 지구협의회였으나 인준 투표가 모두 끝나고 회의 현장에서 추천을 받아 장육용 회원이 만장의 박수갈채로 인준을 갈음하며 선출돼 처음 시행하는 지구협의회별 할당 이사 감사 제도가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다. 새로 선출되는 이사와 감사 9인의 임기는 정기 총회가 개최된 이날부터 시작되며 임기는 2년이다.

정.부회장 인준과 이사/감사 인준 투표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수고를 했다. 선관위원은 원래 7명이었으나 3명의 위원이 이사 후보로 나서 이해 상충으로 제외됐고 출석한 남은 위원 3명이 개표와 검표 및 결과 발표까지 임무를 무난히 수행했으며 이현식(두람 지구협회장)위원이 임시 위원장 역할을 맡았다.

신임 이사장은 향후 1개월 이내에 개최되는 1차 정기 이사회 - 보통 11월 중에 개최됨 - 에서 자동 이사인 지구협회장들과 이번엔 새로 선출된 9인의 이사와 감사 등 29명이 모여 선출하게 된다. 이사장 임기는 1년이다.

결산과 예산 보고는 지난 정기이사회 내용과 특별히 달라진 점이 없었으며 모두 승인 통과됐고 다만 총회 개최 수일 전에 프리토레이츠이 협회와 관계를 단절하고 따라서 리베이트나 지원금 제공도 없을 것이라는 통고를 해온 것에 대해 깊은 검토가 있었다. 프리토레이츠가 제공하는 리베이트와 지원금은 대략 25만 달러로 이의 중단은 협회 수익 구조의 큰 몫을 상실하게 돼 타격이 매우 크다. 따라서 예산 수립 자체가 흔들리는 사안인 만큼 회사측과 재접촉해 연유를 파악하고 관계정상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신 회장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예산을 비롯한 회원 수익에 손실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담유 합동 법률그룹

Adam Yoo Stigler Nguyen & Associates

각 분야 전문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여러분의 법률 문제를 최선을 다해 해결해 드립니다.

교통사고, 개인 상해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교통 사고 후유증에 관한
최대 보상,
낙상, 정무 과실 보상 소송

교통위반 티켓

과속, Stunt Driving,
무보험, 신호 위반,
행소니 등
모든 교통법규 위반

형법

음주 운전, 폭행,
절도, 사기, 마약(Drug)
보석(Bail) 등
모든 형법 위반

- * 형법
- * 소액재판
- * 복권 판매법

- * 가정법
- * 세권, 세입자 분쟁
- * 담배 판매법

- * 민사소송
- * 주류 판매법
- * 회사 설립

* O.D.S.P. 신청(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
1년 이상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시 청구 가능.

“강력한 실력, 오랜 경력, 섬세함으로
모든 법률 문제 해결”

변호사 : Leonard Stigler, Mai Nguyen, Shiv Passi
법무사 : Adam K. H. Yoo, David Song, Mark Ginz
Kate N. Han, Hassanein Bhaloo,
Earl Francis Dacara



T : 416.739.8887 / 647.891.8867 / F : 416.739.7559
1018 Finch Avenue West, Suite #100, Toronto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 또한 보고 내용이 달라지지 않고 승인 통과됐다. 사업계획과 관련해 신 회장은 본부 협회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인 프로그램스토어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이끌어갈 것을 시사했다. 가입 회원 수 증대만을 무작정 추구하는 기존 전략을 수정해 조건 준수 역량이 미흡하거나 전체 사업에 기여도나 협조 태세가 원만하지 못한 가입자를 쫓아내고 우량 회원 중심으로 이끌겠다는 입장이다.

조합과의 관계정립도 한마디 했다. 기본적으로는 조합에 대한 협회의 지배력 강화가 돼야 한다는 신념이었다. 조합과 협회의 별도 법인체라는 법적 형식적 관계를 떠나 내용적으로 조합은 협회의 부대사업체임을 명확히 인식하자고 역설했다. 본인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후임부터 적용될 것이지만 따라서 협회 회장이 조합 운영이사장을 겸임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했다. 처음 시도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도 몇차례 시도한 바가 있었던 일이고 다만 당시에는 “둘 다 해먹느냐”는 비판때문에 오래가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비판을 주고받을 경영 환경이 아니고 효율성과 저비용 차원에서 결단이 다시 필요한 시기인 만큼 회원들도 많은 고민을 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캐나다한인상공실업인총연합회(UKCIA)의 위상 강화도 지난번 정기이사회때와 마찬가지로 공들여 강조했다. 각 지역별 협회들의 느슨한 연대 수준이라면 친목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힘들지만 최근 공급사들도 온타리오 주 하나만 상대하기보다 전국적 조직과의 상대에 비중을 두는 만큼 UKCIA의 틀안에서 협회가 운신하는 것이 실리적 차원에서도 이롭다

는 점을 상세히 전했다.

이밖에 이벤트 행사와 관련해서는 협회와 조합이 합동으로 골프대회를 치를 구상을 밝혔으며 선상 크루즈 유람으로 최초 시도해본 여성이밤 행사가 큰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저비용 고만족의 행사로 이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전무없이 운영되는 직원 운용 체제에 대해 회원 신분이 복원된 후 처음으로 공개적 모임에 나선 허종규 전임 회장이 우려를 전하며 재정이 어려울 때일수록 전문인을 고용해 수익 창출을 적극 도모하는 공세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마디로 사업 발굴에 무게를 뒤야 할 것이라는 조언이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일견 타당한 생각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인력 구조만큼은 보강없이 긴축으로 이어갈 것임을 단언했다.

정관 개정은 회장 탄핵 요건을 가볍게 하자는 원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현행 정관에는 의사정족수를 20%(성원)로 하고 재석 인원의 2/3의 찬성으로 탄핵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약 1,000여 명의 정회원 중 200명 이상을 출석시키는 문제는 거의 현실성이 없고 따라서 회장 탄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일반 총회 성원과 동일하게 5%로 하자는 안이다.

이에 대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50여 명 정도가 총회를 소집해 그중 2/3로 밀정한 회장을 탄핵하는 악용의 우려가 있음을 들어 15% 정도로 낮추자는 수정안이 나와 두 안을 놓고 거수 표결에 부쳤다. 34명 재석 인원 중

(13면에 계속)



onewholesale.ca

Smoke Shop / Headshop / Convenience Store Wholesaler

Authorized Zippo Dealer

원도매상

Order online by noon for **SAMEDAY SHIPPING**

*Ask for Free Zippo Display

BONGS, DAB RIGS, BUBBERS, RECYCLERS, HAND PIPES, E-CIG, VAPORIZERS, GRINDERS, DUGOUTS, SCALES, SMOKING PAPERS, ALL KINDS OF SMOKING ACCESSORIES, ZIPPO LIGHTERS, and ETC.

Business Hours

Monday to Friday
9.00am - 5.00pm
Saturday
9.00am - 2.00pm
Closed on
Sunday and Holidays

Cash & Carry Store

606 Magnetic Dr Torono, ON M3J2C4

onetradingltd@gmail.com

T. 416 661 6664 F. 416 661 6668

편의점 술판매 이슈 신회장과 조장관 독대

“연내 매듭 최선”,
“포드 수상 때 반드시 관철돼야”



본부협회 신재균 회장이 지난 10월 8일(화) 조성준 노인복지부 장관과 독대한 자리에서 비어와인의 편의점 취급 확대 실시와 관련해 깊은 대화를 나눴다. 토론토 다운타운(777 Bay St.)의 정부 건물 5층 장관 집무실 부속 회의실에서 오후 3시 30분부터 약 40분에 걸쳐 대화가 있었다. 신 회장은 “일부 오지를 중심으로 두차례 문호를 확대한 것은 고무적이나 실제로 경영의 어려움은 도시 소재 회원 업체들이나 만큼 정부의 향후 이행 계획이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전 자유당 정부가 비어스토어와 맺은 계약이 큰 걸림돌이고 재무 장관 교체가 있어서 다소 추진이 소강상태에 있는 듯도 보이겠지만 정부도 나름 조기 매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줄 것을 당부했다.

격의없이 편한 분위기여서 신회장은 최근 외곽지역 일부 회원들이 LCBO로부터 받은 부당한 처우의 사례를 들며 정부의 정책 집행이 보다 공정할 것을 허심탄회하게 전했다. 최근 회원 중 한명이 LCBO 아웃렛 허가를 얻었으나 선정에 실수가 있었다며 취소를 당했다. 취소 후 LCBO는 다른 지역으로 지정을 했으나 그 장소는 애초에 정부가 발표한 명단에 들어 있지 않은 장소라는 것이 취소당한 회원의 항의다.

또 다른 사례는 회원의 기소 기록으로 발생한 것이다. 역시 이 회원도 LCBO 아웃렛 허가가 났으나 오래 전에 형사 기소가 된 사건 기록이 있다며 허가를 뒤늦게 취소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무죄판결된 사건임을 증명해 다시 허가를 내주려고 했지만 뒤에 가세한 경쟁자가 있어 추첨한 결과 탈락이 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두 사례 모두 LCBO 담당 부서의 일처리가 불공정하고 매끄럽지 못한 때문인 것은 분명해 신회장이 이를 장관에게 자세하게 전달하며 정부의 공정한 일처리를 촉구했던 것이다. 조 장관 역시 크게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주무부처에 잘 전하겠다며 의미있게 받아들였다.

신 회장은 면담 후 “조 장관의 신중한 발언들을 종합해볼 때 비어스토

어와의 연내 계약파기 성사를 추진하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신 회장은 또, “시위나 캠페인이 늘 정부 입장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편의점 비어와인 판매 정책은 정부가 앞장서고 있고 업계가 뒤따르는 형국인 만큼 정부에 대한 성원과 격려를 더 가열차게 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 회장은 10월 20일 모국에서 매년 이맘때 개최되는 세계한상대회 참석차 출국해 같은 달 31일 귀국한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신 회장의 귀국 후 빠른 시일에 로드 필립스 재무장관과 신회장 사이의 면담 주선을 성사시켜 편의점 술판매 이슈를 비롯한 재무부 관할 이슈들을 광범위하게 다룰 기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온주 경제사절단이 한국 정부와 세계 접촉을 위해 지난 10월 12일 출국했는데 조 장관과 수행비서도 함께 사절단에 포함됐으며 귀국 후 협회와 유관 부처간의 활발한 접촉이 기대된다. ■

(주) 하이쿨 텍
냉동·히팅

“신속하고 쿨한 서비스를 약속합니다!”

Canada Heating & Cooling Licensed Technician

HI-COOL TECH
에어컨 설치 문의 환영
김순석 (Peter Kim)

전문적인 기술자가 뭉쳐 기술 시너지
효과 (Synergy Effect)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 업소용 - 냉동, 히팅, 에어컨, 워킹콜러/후리저, 덕트, 케노피
- 가정용 - 냉장고, 히팅, 에어컨, 전기, 배관 외
- 상업용 - 공장, 상가 및 교회 건물관리 (냉난방 시스템 외)
- 선택전문점 정비 일체 수리
- 자동차어, 수중모터 및 보트엔진 수리 외

장거리 출장수리 가능

신용과 책임을 우선 합니다

416.909.7114

2019 세계한인회장대회 성대히 개최

주점식 회원, 2020년 행사 공동 의장 선출



▲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에 선출된 협회 회원이자 캐나다한인총연합회 주점식 회장(오른쪽)과 인도한인회장 겸 아시아한인총연합회 회장 심상만 회장. 심회장은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의원의 친오빠이다.

2019 세계한인회장 대회가 지난 10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모국의 서울 그랜드위커햄 호텔에서 성대히 개최됐다. 80여개국 대륙별 한인회 연합회장 등 임원진 400여 명과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 고위급 인사들

과 여야 정치인 100여명을 포함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최하는 기관은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 재단이며 회원이라면 익히 알고 있는 한상(韓商)대회도 이 기관에서 주최한다.

올해가 20회째인 대회는 세계한인의날 기념식도 겸해서 열린다. 한인의날 행사는 올해가 13번째이며 보통 행사 마지막날 개최된다. 동포사회 현안과 모국 발전에 기여할 방안 모색 등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와 네트워킹을 가지는 행사의 올해 주된 이슈는 ▶해외 투표율을 높이고 ▶재외동포들을 위한 의료보험 개선에 노력하며 ▶해외한인사회의 문화활동을 돕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었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는 약 5,200만이며 해외 동포수는 750여 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10월 2일 대회 개막과 함께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으로 주점식 회장과 심상만 회장을 선출했다. 주점식 회장은 올해 1월에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최근까지 분부협회 이사를 맡기도 했다. 또 한명의 의장인 심상만 회장은 인도한인회장 겸아시아한인 총연합회장을 맡고 있다. 심 회장은 정의당 대표인 심상정 의원의 친 오빠이다.

주회장은 공동의장 선출과 관련해 "비록 1년 봉사이지만 해외동포의 모국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 협회 발전에도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모국과의 가교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캐나다한인여성회

KCWA 노스옥센터: 5075 Yonge St., Suite 401, North York
KCWA 베더스트-핀치: 540 Finch Ave., W. North York

2019년 10월 프로그램

정부지원 임대주택

- 일시: 10월 4일 (금) 오전10시30분 - 오후12시
- 장소: KCWA 베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정착상담원 강영욱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정부지원 임대주택이란?
2. 노인아파트란?
3. 정부지원 임대주택의 신청자격, 조건 및 신청절차
4. 정부지원 임대주택의 종류와 위치
5. 실버복지 아파트 정보

나를 말하다
- 여성으로 살아가기

- 일시: 10월 10, 17, 24, 31일 (목) / 총 4회기
오전10시 - 오후12시
- 장소: KCWA 베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가정상담원 정유연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인권과 남녀평등
2. 사례나누기
3. 스트레스 관리와 자기 이해
4. 스스로 자립하기: 당당한 여성으로 살아가기

온타리오주 대학/전문대학 입학원서 작성 안내

- 일시: 10월 24일 (목) 오후6시 - 오후8시
- 장소: KCWA 베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정착상담원 최성혜 (문의: 416-340-1234)
- 내용: 1. 대학 진학 준비 시기와 요령
2. 원서 작성 및 진행 과정
3. 유용한 사이트: eINFO, ontariocollege.ca
4. OUAC / OCAS 사용하기
5. 신청서 작성의 실제

웰컴 투 캐나다
- 캐나다 시민권시험 준비반

- 일시: 10월 10일, 17일 (화) / 총 2회기
오후6시 - 오후8시
- 장소: KCWA 베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정착상담원 박민희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웰컴 투 캐나다
2. 내가 살고 있는 온타리오 이해하기
3. 캐나다 시민의 권리와 책임
4. 캐나다의 역사, 근현대사, 정부, 사법시스템
5. 캐나다의 상징, 경제, 지리

내가 지키는 노년의 행복

- 일시: 10월 22일, 29일 (화) / 총 2회기
오전10시 - 오후12시
- 장소: KCWA 베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가정상담원 김진옥 (문의: 416-340-1234)
- 내용: 1. 노인학대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바른이해
2. 노인학대 대응방법과 안전계획

혼자하는 영주권카드 갱신

- 일시: 10월 29일 (화) 오후6시 - 오후8시
- 장소: KCWA 베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정착상담원 김효원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영주권자의 거주무류 규정
2. 영주권카드 신청 및 갱신 안내
3. 준비서류와 진행
4. 신청서 작성의 실제

주택담보 대출에 관한 모든 것

- 일시: 10월 23일 (수) 오전10시 - 오후12시
- 장소: KCWA 베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정착상담원 이선경 (문의: 416-340-1234)
- 내용: 1. 모기지 용어
2. 모기지 신규 및 갱신
3. 모기지 선택: 고정변동 금리 및 개방-폐쇄형 모기지
4. 최초 주택 구입, 신규 이민자를 위한 모기지
5. 모기지 승인 절차 및 상환

배우자 초청 안내

- 일시: 10월 22일 (화) 오후6시 - 오후8시
- 장소: KCWA 베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정착상담원 김효원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스폰서십의 의미와 자격
2. 배우자 초청 이민 절차
3. 신청서와 구비서류

Funded by: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Financé par: Immigration, Réfugiés et Citoyenneté Canada

출 / 석 / 위 / 임 / 장

성명 : _____
 상호 : _____
 주소 : _____

상기 본인은 금번 2019년 12월 3일 개최되는 협동조합 주주총회에 일신 상의 사유로 참석할 수 없기에 본 출석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이번 총회에서 결의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해 동의한 것과 동일한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줄 것을 서약하며 일체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9년 월 일

서명 :

- * 보통주 현금 100불 수표 또는 110불 조합 쿠폰 우편 수령을 희망하는 조합원은 정확하게 영문으로 성명과 주소를 기재바라며 우편번호도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 * 보통주 100불 보유 회원은 아래 두가지 중 하나에 표시하여 현금받기 바랍니다. 현금을 원치 않으면 아무런 표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100불 현금 ()	110불 조합 쇼핑 쿠폰 ()
--------------------------------	--------------------------------------

* 조합 팩스번호 : 416-789-5013

협동조합 100불 보통주 현금

협동조합이 오는 12월 3일 (화) 오후 1시에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총에서는 과거 100불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이를 무조건 현금해줄 계획이다. 2018년 주주총회에서 조합 정관을 개정해 100불 보통주는 1불 보통주로 과거와 같이 환원했고 이에 근거해 올해 2월에 996명의 협회 회원 전원에게 1불 보통주 증서를 개별 송부했다.

따라서 일부 회원들은 100불 보통주와 1불 보통주를 동시에 보유하는 현상이 발생해 이를 정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100불 보통주 보유 조합원에게 이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 주총에 참석하는 조합원 중 100불 보통주 보유 조합원은 입장 시 직원에게 현금 신청을 하면 수일 내로 100불 수표를 받게 된다. 이와 아울러 100불 현금 대신 조합 쇼핑 쿠폰 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10%를 가산해 110불 조합 쿠폰을 받을 수도 있다. 이는 선택사항이므로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해 직원에게 알려주면 된다.

한편, 부득이 12월 3일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조합원은 상기 '출석위임장'에 서명하고 현금 100불과 조합쿠폰 110불 중 하나에 표시를 하면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

가위로 절취해 팩스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KBA 협동조합 2019년 주주총회 공고

본 KBA 협동조합은 정관 제 4장 제 13조에 의거
제 37차 연도 정기 주주총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 : 2019년 12월 3일 (화) 오후 1시

■ 장소 : KBA협동조합 부속 회의실

(169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TEL : 416-789-7544)

■ 안건

- 1) 2019년도 업무보고
- 2) 2019년도 결산보고 및 승인
- 3) 2019년도 감사보고
- 4) 2020년도 예산안 보고 및 승인
- 5) 운영이사(4인), 감사(2인) 선출
- 6) 정관개정
- 7) 기타

■ 유의사항

- 1) 주주 조합원은 회의 참석 시 필히 사진 부착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2) 주주의자격은 온주 협동조합법(CO-OP Act) 82조와 당 조합 정관 9조 3항을 기준합니다.
- 3) 주주총회 조합원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최근 2년 내 최소 1회 이상 상품을 구매하고 보통 주 1주 이상을 보유한 조합원에게만 부여됩니다.(기산일은 회계연도 시작인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2년)

■ 기타사항

- 1) 기존 100불 보통주 보유 조합원은 금번 주총에 참가해 100불 주식 증서를 제시하면 100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10%가산한 110불의 조합 쿠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우선주 현금 반환은 향후 추진예정)
- 2) 부득이 총회 불참의 경우, 출석위임장을 제출한 조합원은 회의 참가로 간주하고 상기 1항의 100불 보통주 환급을 즉각 조치합니다.(출석위임장은 실험뉴스의 양식을 기재 절취하여 조합 팩스 416-789-5013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실험웹사이트 www.okba.net 공지 사항에서도 양식을 출력 기재해 송부할 수 있습니다.)
- 3) 운영이사, 감사 후보 신청자는 후보 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양식을 조합 사무실에서 수령 후, 본인이 직접 2019년 11월 27일(수)오후 5시까지 조합 사무실로 후보 등록을 완료바랍니다.

KBA협동조합 운영이사장 신영하

주유 / 세차 업계의 4대 관심사

노동법 / 세금 / 카드수수료 / 연방탄소세



편의점과 늘 함께 가는 분야가 주유소와 세차 비즈니스다. 미국의 경우는 주유소 병설 편의점이 대부분이다. 협회 회원들 중에는 주유소 병설 편의점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이쪽 분야에 대한 관심이 덜하겠지만 트렌드나 동향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겠다. 현재 캐나다에서 이 분야와 관련한 몇가지 이슈들이 대두되고 있어 이를 살피고자 한다.

편의점도 그렇지만 주유 세차 비즈니스도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대체 연료, 새로운 세제(稅制), 각종 규정들이 경영 여건의 주요 변수들이다.

요약하면 경쟁력 유지의 핵심은 당면한 과제들이 뭔지 정확히 이해하고 이들을 관리해나가는 방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도움말은 전국독립사업체연맹(CFIB)의 회장이자 CEO인 댄 켈리씨의 글을 기초했다. 이 조직은 소속 회원들을 위한 실속있는 서비스로 봉사하는데 시사점이 크다.

노동관련 법령들

많은 비즈니스들이 인재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리가 많이 비어 있다. 그렇다고 아무나 쓸 수도 없다. (*이는 편의점도 마찬가지다.) 주유소나 세차장이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예를 들자. 종업원 한명이 맡아서 혼자 5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현재의 노동법 상으로는 영업을 30분 중단해야 한다. 손님 받으면 안되고 종업원이 30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해줘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면 그 30분 동안 방문한 고객을 잃게되는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큰 회사도 아니니 인사부서가 따로 있을리 없다. 즉, 사람 고용하는 것과 관련된 법률 지식이 없다면 관련 법령의 존재 여부, 그리고 그런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휴식시간, 휴일 노동 등 세부 정보를 접하지 못한다. CFIB의 비즈니스 담당 자문관들은 이와 관련된 조언이나 상담을 해준다. 종업원의 휴식 시간을 15분 단위로 정하라는 조언도 이 중 하나다. 다시 말해

5시간 근무 전에 15분 쉬고 이후에 15분을 쉬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30분이라는 긴 시간의 공백을 피할 수 있다.

국세청(CRA)

정식으로 감사를 받는 입장이든 단순한 기초 정보를 구하기 위한 것이든 국세청과 접촉이 된다는 것은 다분히 위협적인 느낌을 가지게 만든다. 많은 소자영업주들은 이 기분의 연원이 마치 자신들이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닌가 싶은 느낌에서 비롯된다고 고백한다.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CFIB가 지금까지 국세청을 상대하면서 대국민 서비스에 있어서 많은 개선을 유도해왔다. 여기에는 국세청 사이트의 'My Business Account'를 통해 송부된 국민들의 서신 문의나 요청을 국세청이 적극 환영하도록 하는 여건 조성도 포함된다. 이는 다시 말해 개인의 세금기록 관리의 선제적 서비스화를 통해 납세자의 소외감을 제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건설한 급여관리 프로그램은 봉급쟁이 세금 정보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T4슬립(임금 노동자의 세금 보고를 위해 고용주측이 피고용인에게 발급하는 소득신고 양식)이 정확하고 적기에 제출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CFIB는 급여시스템 관련 서비스 업체페이웍스(Payworks)와 제휴해 소속 회원들에게 특별가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매우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의 서비스는 소속 회원들로 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카드 수수료

요즘 신용카드를 받아줘야 하는 것은 거의 의무화된 경향이 있다. 불행하게도 카드 수수료 때문에 소매업소의 마진폭이 더 쪼그라들었고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특별우대 카드나 포상 포인트 적립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어 상인들의 이윤구조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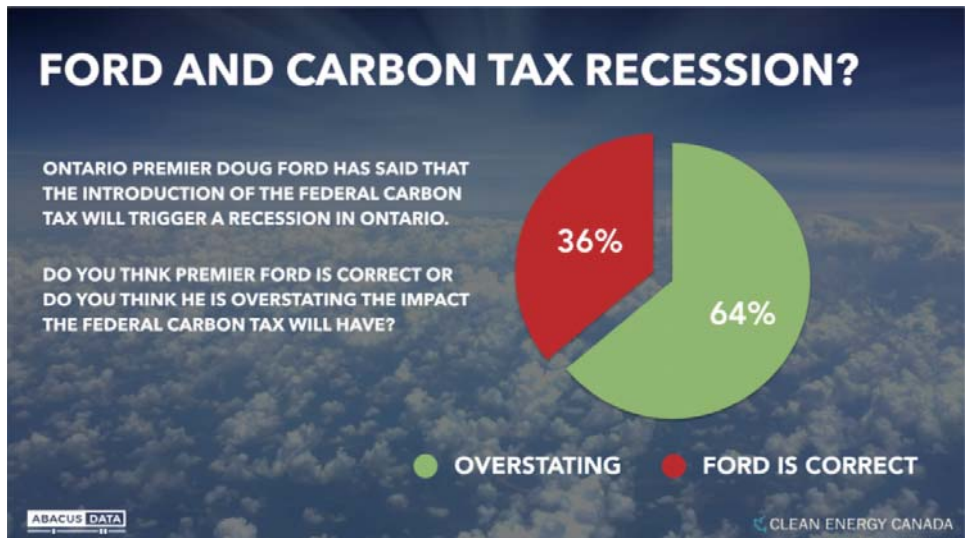
지난 10년이 넘도록 CFIB는 독립비즈니스 업주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대정부 로비를 해왔고 약간의 개선을 획득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카드 회사의 부당한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를 보장하는 지침(Code of Conduct)을 제정하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2015년 CFIB는 수수료 인하와 인화된 요율의 5년 동결을 비자와 마스터카드사에서 보장 받을 수 있었다.

연방 탄소세

연방 탄소세가 일부 주 - 사스캐추원, 매니토바, 온타리오, 뉴브런즈윅 등 - 에 올해 4월부터 도입됐는데 이미 주유소를 중심으로 제도의 불합리가 노정되고 있다. 영수증에는 탄소세가 찍혀 나올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부 독립 주유소 업주들은 시스템 전체를 새 영수증 발급을 위해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탄소세 반대 캠페인이 격화되는 가운데 온주 정부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 중인데 모든 주유기 (pump)마다 반대 문구가 인쇄된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며 이를 어기면 1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했다. (이후 이 과격한 벌금제는 철회가 되기는 했다.) 별 실속이나 현실성도 없어 보이는 캠페인으로 공연히 주유소 업주들의 시간과 노력만 헛되이 소모되기 때문에 일단 저지는 했다. 그와는 별개로 CFIB회장은 회원들에게 연방 탄소세가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 CFIB본부를 접촉하고 선거가 임박했으니 지역구 의원들을 비롯한 정치인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라고 고무하고 있다.

이상 CFIB가 주축이 돼 주유/세차 업계의 현안 문제들과 아울러 이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조직의 본부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선명하게 파악이 됐다. 협회 역시 유사한 활동, 특히 대정부 활동에 있어서 그 어떤 상부 조직보다 열성적인 노력을 쏟아왔다. 비어와인의 모든 편의점 취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복권 수수료 인상, 불법담배 퇴치, 담뱃갑포장통일화 정책에 대한 우려 등을 전체 편의점업계를 대신해 정부에 전했고 올해도 그 노력은 중단없이 계속될 것이다. 소속원들의 관심과 참여의식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



▲ 연방탄소세 저항이 온주에서 만만치않은 가운데 더그 포트 수상의 반대 입장에 대한 정확성을 놓고 벌인 설문 조사 결과 옳다는 쪽보다 과장과 부정확하다는 여론이 훨씬 높게 나왔다.

<7면에 이어> 신재균 회장, 2기 임기 시작



26명이 원 수정안(5% 성원)을 지지했다. (15% 안은 6명) 선거제칙은 지구협의회별 이사 2명, 감사 1명을 할당해서 총회에서 인준받는다. 개정 정관과 의미를 맞추기 위한 지구 수정 수준에 불과한 것이며 35명의 재석 인원 중 31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1시에 시작한 회의는 4시 30분 무렵에 폐회됐다. ■

이민 물결

캐나다 음식 미래를 바꾸는 중!



한국 음식과 식품도 큰 몫

캐나다 1백년 이민 역사에서 2018년은 역대 최대의 이민자를 받은 것으로 기록됐다. 캐나다도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추세로 접어들지만 그래도 이민자 유입 덕분에 경제에 젊음과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물론 이는 광범위하게 캐나다의 모든 것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이지만 특히나 캐나다인들이 무엇을 쇼핑하는지, 그리고 이 중에서도 어떤 식료품을 구입하는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새 이민자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출신국에서 자신들이 먹던 선호 음식들도 함께 들어온다. 그렇게 해서 식문화가 다른 인종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대세를 만들어 다수의 인구층이 소비하는 경지에까지 이른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 음식은 그런 역사가 이미 오래됐고 베트남 음식도 수많은 식당이 난립해 있으며 한류문화 한류음식으로 인기 대박인 한국 식당 또한 많은 타 민족 고객을 확보하게 됐다. 심지어 코스트코를 비롯한 유명 소매 유통망을 방문해보면 다양한 한국 식품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조사연구기관인 민텔의 발표에 따르면 소수민족 음식을 즐긴다고 답한 응답자가 77%라고 한다. 이는 수년 전의 동일한 조사때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는데 그만큼 캐나다가 소수민족 음식에 개방적이 되고 있다는 증거다. 오히려 기존의 습관화된 주류 문화속의 음식보다 소수민족 음식, - 영어로는 ethnic food라고 하지만 바로 이런 경향때문에 international food라는 용어를 최근에는 더 즐겨 표현하고 있는 실정임 - 이 주류 음식이 되어가는 분위기다.

캐나다인은 이제 점점 더 요리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이며 이는 식료

품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 공부할 과제가 더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요즘 사람들의 식습관은 어떠하며 어떤 민족의 어떤 새로운 식품이 트렌드를 이루고 있는지 예민하게 살펴야 한다. 특히 젊은층일수록 타 민족 음식에 대해 호기심과 호기심으로 잘 접근하고 경험욕구가 강렬하다.

이런 현상들의 이면을 좀더 깊이 들어가 보자. 새로운 요리나 식품에 대한 캐나다인의 경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식품업주는 아직까지 일반화되지 못한 식품이나 음식이 뭐가 있는지 잘 관찰해봐야 한다.

중국 음식과 이태리 음식은 캐나다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애용되는 음식이다. 하지만 민텔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좀 색다른 음식은 없는가 하고 열심히 찾아다니며 각별한 음식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카리브 음식, 아프리카 음식, 한국 음식은 이런 면에서 시장 개발의 큰 기회와 잠재력을 가졌다고 분석한다. 조사는 한 단계 더 깊은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처럼 소수 민족의 음식에 대한 경험과 애호감은 그 해당국의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발전한다. 한마디로 음식이 한 나라 전체와의 인연을 맺게 하는 다리역할이 된다는 것이다.

일목요연한 소수민족 식품 상품기획 전략은 오늘날 식품업에 중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대한 과제가 됐다. 민텔 조사에서 캐나다인의 56%는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식품점(편의점도 마찬가지로)에 들어가 식품들을 살펴보니 소수민족 상품이 전혀 혹은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이라면 그 식품점은 시대에 뒤져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현상을 정확히 짚어낸 분석과 결과이다. 응답자의 거의 절반은 이왕 갈 식품점이라면 국제적인



▲ 코스트코를 비롯한 대형 유통매장에서 쉽게 발견되는 한국 식품들. 짜짜면, 갈비, 양념한 불고기에서부터 라면은 기본이고 김까지 판매되지 오레다.

다양한 식품을 구비하고 있는 식품점에서 쇼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5명 중 2명 꼴로 향후 특별한 음식이나 식재료를 구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중국계 캐나다인들과 남아시아계 캐나다인들이 특히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제품 구색맞추기 측면에서 특히 주목할 현상은 남아시아계 출신 소비자들이다. 이들은 그 어떤 민족들에 비해 디저트, 구운 음식, 스낵, 아침 식사에 있어서 다양한 소수민족 음식을 경험하고 싶어 한다. 한마디로 캐나다에 있는 온갖 민족들의 배경을 깔고 있는 음식은 다 맛보고 싶어한다는 의미다. 이런 의미에서 식당주인이든 편의점 업주든 식품점 업주든 음식과 관련된 종사자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 인구 증가는 이민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이민자를 단골로 삼기 위해 자신의 업소에서 상품구색이 어떻게 맞춰져야 하는가를 당연히 연구해야 한다. 방금 온 신규 이민자가 아니더라도 오래터전을 잡고 사는 소수 민족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이들 고객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업소 위치의 고객 분포와 특성은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영업을 하는 것은 사업 성공의 관건이다. 세상에 먹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절실한 주제가 있는가. 다른 이슈들은 다 후차적인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 ■

캘거리 공항 7-Eleven 2개 매장 오픈

식사와 일반 쇼핑 동시에 해결



세븐일레븐 캐나다(7-Eleven Canada)가 10월 초에 캘거리 국제공항에 두개의 매장을 오픈해 주목받고 있다. 국내선 터미널에 한개, 그리고 터미널 A와 C 연결 통로에 한개가 각각 들어섰는데 여행객과 공항 직원은 물론 사람 태우러 와서 기다리는 손님들까지도 목표 고객으로 삼고 있다.

부회장 겸 전무인 노만 하위씨는 “국내선 이용객이든 공항 직원이든 여기 캘거리 공항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의 고객이며 편하게 365일 24시간 어느때고 이용할 수 있으며 식사도 해결하고 여행관련 용품 구입, 꽃이나 기념품 구입 등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자랑스럽게 밝혔다.

실제로 새로 오픈한 두개의 매장에서는 다양하고 뜨끈한 간편 식사대용품이 제공되는데 오븐에서 갓 구워 나온 피자, 닭날개 튀김과 여타 따뜻한 주전부리들이 준비돼 있고 샌드위치와 핵심 음료수는 기본으로 갖춰져 있다. 커피와 전통적인 슬러피도 당연히 제공된다. 장소가 공항이다보니 은근히 꽃 수요도 있다.

그래서 공항 인근 에어포트 로드 소재하는 꽃가게인 터치페틀(A Touch of Petals)에서 공급받은 꽃들도 취급한다.

이번 두개 매장 오픈과 관련해 캘거리국제공항 관리공단 재무 최고담당 겸 또 다른 부회장을 겸하고 있는 랍 팔머씨는 “우리 공항에 세븐일레븐 매장이 2개나 오픈한 것은 매우 축하할 일”이라며 캐나다에서 50년 전에 세븐일레븐이 슬러피를 처음으로 선보인 곳도 캘거리였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안그래도 여론 조사를 하면 식사와 쇼핑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윈스톱 쇼핑 공간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들어오던 차 세븐일레븐이 이 개선요구에 딱 맞춰 부응하게 돼 다행”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세븐 일레븐 아메리카 본사는 텍사스 어빙(Irving)에 소재하고 있으며 17개 국가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든 라이선스를 얻어 영업하던 세븐일레븐 우산아래서 영업하는 매장 수는 총 69,000여개이며 북미주에만 11,800개가 있다. 캐나다는 약 640여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애국심에 벼락맞은 일본맥주

대한민국에서 자취감취, 99.9% 감소



▲ 일본 맥주를 치워라! 모국에서 부동의 1위를 고수하던 일본 맥주가 불매운동 100일이 지난 현재 한국 땅에서 거의 사라졌다. 그 자리를 중국 맥주가 차지해 1위를 달리고 있다. 9월 수입액 기준으로 중국 1위 (376만 달러), 2위 미국(264만 달러), 3위 네덜란드(254만 달러), 4위 벨기에 (250만 달러), 5위 폴란드(180만 달러) 순위다. 일본은 꼴도 잘 안보이는 27위에 머물러 있다.

7월 초에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100일 넘기고 있는 현재, 한국 편의점에서 가장 불타나게 팔리던 일본 맥주의 운명은 어찌됐을까 궁금하다. 대한민국이 조국 범무장관과 가족을 둘러싸고 지리한 정치 공방이 벌어졌던 탓에 일본의 수출규제와 이에 맞서 애국심으로 불타오른 시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잠시 관심에서 멀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살펴본 불매운동의 가장 상징성이 큰 제품인 일본 맥주는 현재 대한민국땅에서 거의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관세청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지난 9월 한달 일본 맥주 수입액은 고작 6천 달러. 전년 동월의 약 675만 달러에 비하면 99.9%가 감소한 것이다. 감소라는 표현도 무색한 것이 거의 100% 줄어든 수치이니 '사라졌다', '퇴출됐다'고 표현해야 마땅하다.

보통 어떤아이템 수입물량이 20~30%줄어들면 폭격맞았다고 하고 절반 이하면 완전히 초토화됐다고 하는데 99.9%이면 일본 맥주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없다'고 해야겠다. 불과 몇개월 전까지만 해도 일본 맥주가 한국 편의점을 비롯한 모든 유통 매장에서 부동의 1위를 유지하던 기세를 뒤로 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수구 정권인 아베와 그의 심복들이 취한 우매한 정책 탓이다. 상징적으로 맥주만 살펴본 것인데 일본을 찾는 한국 방문객의 발길이 뚝 끊겨 소도시와 마을 관광지는 다 죽게 생겼을 정도로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고 한다.

다시 일본 맥주 이야기로 돌아와서 7월 초 일본상품 불매운동이 벌어지던 첫 달인데 일본 맥주는 그 전 달인 6월 수입액 790만 달러 대비 4,342,000 달러로 이미 45%가 감소했다. 그리고 그 다음달인 8월이 되자 수입액은 고작 223,000 달러로 이전인 7월 대비 94.9%가 감소했다. 그리고 9월 실적은 앞에서 본 그대로다. 애국심이 얼마나 빠르고 무서운 위세로 일본 제품을 강타했는지 수치만 봐도 실감이 난다. 편의점은 유통기한이 다가오는 일본 맥주 처리 방법으로 고민에 빠져있다. 일본 우익 정치집단은 한국인의 유별난 대일 저항감과 애국심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에 대해 뼈저린 후회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밀 부품과 신소재 분야에서도 매우 빠른 속도로 홀로서기를 하는 가운데 일본의 관련분야 수출 회사들의 불만과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으니 저들도 일본 정부에 대한 야속한 마음이 이만저만 크지 않겠는가 싶다. ■

패스트푸드체인의 소매유통망 뚫기 경쟁

편의점에서도 손쉽게 사서 집에서 소비

인기있는 패스트푸드점이 자사 상품을 포장해 일반 식품점을 비롯한 소매 유통망에도 보급을 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패스트푸드 광팬들이 더 이상 자신의 단골 식당을 찾거나 주문할 필요없이 인근 식품점에서 사다가 마이크로웨이브에 넣고 몇분만 돌리면 자신의 애호 메뉴를 얼마든지 즐길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몇가지만 예를 들어 보자. 세인트 허버트(St.Hubert)의 치킨 팟 파이, 스위스샬레의 그레이비 소스, 그리고 팀호튼의 홈스타일 칠리소스 통조림 등이 가장 친숙한 패스트푸드체인사의 간판급 제품들이다. 편의점을 비롯한 식품점에서 손쉽게 구입해 가정에서 간편하게 소비할 수 있다.



레스토랑 체인의 자사 제품 수퍼마켓 진출은 요식업 체인사들끼리의 소비자 관심 끌기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어난 고육지책이라 하겠다. 결국 식품점이나 편의점 등 소매 유통망에도 좋고 저들 패스트푸드 회사에게 좋은 윈윈 전략이다.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그만큼 넓어진 것이다. 발품 팔아 굳이 자신의 단골 식당을 가서 주문해 먹을 수도 있고 그마저 시간 걸리고 불편하면 이웃 편의점이나 식품점에서 해당 포장 제품을 사다가 먹어도 되는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편의성의 범위가 확대되는 세상이다.

마케팅 조사 기관 NPDI그룹은 이런 현상이 업계에서 한창 인기 상승이라고 한다. 식품점에서 취급하는 먹거리 상품 중 이들 패스트푸드점 자사 완제품 비중이 꾸준히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에 팀호튼은 3가지 스프와 칠리 소스 제품을 출시해 식품점에서 잘 팔리고 있다.

브로콜리 크림 스프, 쌀밥섞은 치킨 스프, 치킨 누들 스프가 그 3종이고

가정용 칠리 소스도 포함해 이미 지난 8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회사 대변인 새라 맥코넬씨는 “이들 4가지 제품이 캐나다 전역의 많은 소매업소에서 취급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소비(Sobeys), 프레쉬코(FreshCo), 사퍼스트드그마트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팀호튼이 소매업소에 보급하는 먹거리 제품이 계속 추가될 계획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팀호튼의 이번 소매업계 진출은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 1월 병에 담긴 즉석 커피, 아이스 카푸치노, 아이스 커피가 출시될 것이라고 발표했고 연이어 판매하기 시작했다. 더블더블커피바(double-double coffee bar)라는 것도 이어서 나왔는데 초콜렛 대신 커피 성분으로 만든 막대바이다. 기발한 아이디어다.



1951년 몬트리올의 St.Hubert St. 선상에 1호점을 오픈한 세인트 허버트 체인 식당은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온타리오 동부지역부터 대서양까지 분포해 있다. 지난 2016년 토론토에 본사를 두고 있는 카라 (Cara; 현재는 Recipe Unlimited)에 5.37억 달러에 인수됐다. 세인트 허버트가 식품점에 납품을 한 것은 이미 1965년의 일이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매우 시대를 앞서간 마케팅이자 비즈니스 전략이었다. 로티세리 치킨 요리로 유명했던 세인트 허버트가 소매업소에 보급하는 자사 상품으로는 신선냉동 고기파이, 치킨 워, 푸틴 그레이비 통조림, 신선한 샐러드의 일종인 콜슬로(coleslaw)등 수습중에 달한다. 갈비, 버거, 베이컨으로 감은 스켈롭, 각종 소스, 양념까지 식품점 선반에 깔려 있다. 참고로 세인트 허버트의 모회사인 레시피 언리미티드는 산하에 저 유명한 스테이크 레스토랑 체인인 케그(Keg)를 거느리고 있다.

맥도널드 캐나다는 빅맥, 맥치킨, 필레오피쉬 샌드위치 등에 맛을 내는 소스를 지난 2017년 한시적으로 유통시킨 적이 있다. 캐나다 진출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마케팅이었다. 병에 담아 완제품으로 팔던 것 들은 공급사들과의 계약 만료로 식품점 공급이 종료됐지만 커피는 식품점에서 여전히 팔리고 있다. 회사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보

니 모든 패스트푸드 회사들도 매출 증대를 위한 온갖 아이디어를 다 짜내고 있다”고 말했다.



▲ 맥도널드 맥카페 시리즈가 2017년에 한시적으로 병입해서 소매유통채널을 통해 판매된 바 있다.

최근 요식업의 성장세는 잠시 소강 국면을 맞고 있다. 2~3퍼센트 포인트 증가로 성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세는 주춤해보인다. NPD 자료에 의하면 전체 QSR 요식업의 트래픽(올해 8월말 기준으로 이전 1년)은 2% 성장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성장폭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책으로 식품점을 파고드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패스트푸드 체인사들이 식품점을 비롯한 소매유통망으로 시선을 한번

집중하자마자 공급량은 크게 늘기 시작했고 브랜드 인지도와 고객 충성도 또한 높아져 갔다. 보급망을 키우면 키울수록 비즈니스 전체가 활기를 보인다. 본래의 매장이 가지는 의미는 변함없이 중요하지만 이제 매장뿐 아니라 해당 제품이 들어가 있는 일반 소매업소도 막강한 의미를 가지게 됐고 충성 고객들은 양쪽 모두에서 쇼핑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쇼핑 행태를 관찰한 한 패스트푸드 체인사 대변인은 이렇게 증언한다. “편의점에서도 우리 회사 제품을 바구니에 담은 모습이 흔하게 관찰되고 있고 식품점에서 주말 장을 볼 때 포장 스프나 병에 든 커피 제품을 주워 담은 모습 또한 흔한 광경이다.”

패스트푸드 체인사와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식품점 상호 윈윈에 대해 조금만 더 언급하고 글을 마무리하자.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요식업체는 새로이 구축한 보급 채널인 식품점 업계로부터 큰 혜택을 입고 있고 수퍼마켓 또한 마찬가지다. 트래픽이 최근 몇년간 줄어들어 노심초사하던 수퍼마켓 체인들이 저마다 손님 끌기에 안간힘을 기울였고 변신을 대대적으로 하다보니 그로서란트(Grocerant)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Grocer + Restaurant의 합성약어다. 매장 한쪽 코너에 더운 음식 포장 제품만 모아 놓았다. 이들 제품은 다 알만한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유명 아이템들이라 손님에게도 친숙한 것들이다. 그런 데 바로 이 유명세를 타는 제품들로 인해 트래픽이 증대되는 무시못할 혜택을 누리고 있다. 상품기획 전략수립에 바로 유명 요식업체 기성품이 포함되어야 할 이유다. 편의점 업주도 이 지점에 눈을 떠야 한다. ■

여왕의 연설에 영국편의점협회 관심

폭력범죄 형량 강화 법안에 주목



지난 10월 14일(월)에 영국 의회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는 의회 개원식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개원 연설 소위 여왕의 연설(Queen's speech)을 했다. 내용은 새 회기를 맞아 각종 입법의 주요 내용을 의회에 설명하는 것인데 이번 회기 연설에서 영국편의점협회(ACS; Association of Convenience Stores)가 유별나게 여왕의 입

에 주목했다. 다름아닌 폭력범죄에 대한 형량 가중을 담은 법안때문이었다. 그리고 일회용 플라스틱 백 사용에 대한 요금 부과 정책도 관심사였다.

ACS 제임스 로먼 회장은 “폭력범죄를 더 중하게 다루는 새 입법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문제는 범행이 저질러진 후가 아니라 예방책이 더 중요한 정책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에서 편의점을 비롯 한 소매업소를 타겟삼은 폭행과 강절도 행위가 날로 늘어나는 현상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소위 말하는 덜 위험한(low level) 범행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 저급한 수준의 범행이 반복 되면 죄책감을 덜 느끼고 무더져서 결국에 흉포하고 잔인한 범죄로 발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별 효과도 없는 징역 벌금 고지제도 따위는 폐기해야 한다.” 회장은 구체적인 방안까지 지적했다.

로먼 회장은 일회용 플라스틱 백 사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 것에 실망을 표시하면서 “모드 소매업소에 적용한다는 원칙만 언급할 것이 아니라 규모에 차이를 둔 구체적이고 현실적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의 여왕의 연설은 주로 법안이나 주요 정책에 대한 아웃라인만 담겨져 있을 뿐이기 때문에 여왕의 연설을 통해 집권 여당은 여왕의 권위를 빌어 정책 대강을 전하고 구체적 내용은 의회에서 논하게 된다. 이번 회기에 올린 안건들로 가장 비중있는 것은 최근 열렬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유럽연합(EU)탈퇴 - 일명 브렉시트(Brexit; Britain + Exit) - 가 최우선적 의제였는데 보리스 존슨 총리가 자세히 발표했다. ■

■ KBA 협동조합

169 The West Mall, Etobicoke
(협동조합 사무실) ----- (416) 789-7544
169-175 The West Mall, Etobicoke
(협동조합 웨스트몰지점) -----(416) 867-1444

■ 복권관련

AGCO (복권 판매 라이선스 관련) -----(416) 326-8700
(800) 522-2876
Fax (416) 326-5555
OLG -----(800) 387-0104

■ 음료

Coca Cola Bottling Company ----- (800) 241-2653
Pepsi Bottling Corp. -----(905) 568-7909
(800) 387-8400
Saint Jimmy's Coffee Service ----- (416) 250-9427

■ 우유

SAPUTO(Neilson Dairy) ----- (800) 663-4724

■ 스낵

Frito Lay Canada -----(905) 460-2414
South Cove ----- (905) 829-3666
Conagra Brands Canada ----- (416) 679-4200

■ 샌드위치

Classic group of companies ----- (905) 470-1926
A Biz Gourmet(Shirley 부사장) -----(416) 665-1052

■ Meat Jerky

Great Canadian Meat ----- (905) 666-9395
Conagra -----1- (888) 639-7868

■ 초코렛 / 캔디

Nestle Chocolate -----(800) 500-5634
Mars Canada Inc -----(800) 565-0147
Hershey Canada Inc. ----- (800) 268-1304
Mondelez(Cadbury/Christie) ----- (855) 535-5648
Wrigley Canada -----(416) 442-3298

■ 아이스크림

Nestle Ice Cream -----(905) 458-3600
Ontario (800) 500-5634

■ ATM / Debit

Touch Cash -----1- (866) 391-3950
Moneris Solutions ----- 1- (877) 789-5335
1Solution -----1- (888) 554-7355

■ 잡지

Metro 360 ----- (416) 285-2050
News Group -----(905) 681-1113

■ 법률관련

변호사 이영동 -----(905) 272-4339
Best Defence (아담 유) ----- (416) 739-8887

■ 금융 / 회계 / 재정 / 보험

Bank of Canada(위조지폐 관련문의) - (888) 513-8212
신한은행 -----(416) 250-3550
외환은행 -----(416) 222-5200
이방록(회계사) -----(416) 221-2009
박호진(보험중개인)----- (416) 985-5287

■ 언론사

한국일보 -----(416) 787-1111
중앙일보 -----(416) 736-0736
Globe and Mail -----(800) 387-5400
National Post ----- (416) 383-2500
Toronto Star -----(416) 367-4500
Toronto Sun -----(800) 668-0786

■ 장비 설치 수리

종합캐쉬레지스터 -----(416) 622-2255
프로캐쉬레지스터 -----(416) 804-4075
Cool Air Cleaning ----- (416) 224-0020
Hi Cool Tech -----(416) 909-7114

■ 광고 미디어 전문 대행 회사

Adapt Media ----- (416) 856-4466

■ 기타

Kocom -----(416) 769-3532
DSC Digital System ----- (416) 255-6549
David Health International ----- (647) 726-1010
허바헬스 ----- (416) 435-5754
365 Wholesale ----- (416) 931-9002
Butterfly Fashion ----- (416) 785-5999
The Best Inventory Service -----(905) 359-8560
원도매상 ----- (416) 661-6664
DavidWholeSale ----- (416) 419-3751
78 Trading ----- (437) 777-7878
Yeno Trading ----- (647) 967-6561
용역 회사 Tyson Lee -----(647) 545-0922
Atlantic Prepaid Card ----- (888) 479-7779





Sincere Trading of KBA
West Mall Branch

Nov. 1~30

November Special Sale



2⁹⁹



1⁶⁹

Ocean Spray
Cranberry Juice
1.77L-1.87L All Flavours
Reg.3.89 **Spe.\$2.99**
950ml Reg.2.09 **Spe.\$1.69**



Heinz
Tomato Juice 1.36L
Reg.\$2.49 **Spe.\$1.19**



Allen's
Apple Juice 1.05L
Reg.\$1.35 **Spe.\$1.19**



35⁹⁹
Red Bull
24/250ml Original Only
Reg.\$42.99 **Spe.\$35.99**



1⁹⁹

2³⁹



3⁸⁹

McCain
French Fries 900g Reg.\$2.69 **Spe.\$1.99**
Xtra Crispy Fries 650g Reg.3.09 **Spe.\$2.49**
Premium Super Fries 650g Reg.\$3.09 **Spe.\$2.49**
Xtra Crisp Seasoned Fries 650g Reg.3.09 **Spe.\$2.49**
Deep'n Delicious Cakes 510g Reg.4.79 **Spe.\$3.99**
Deep'n Delicious Fruit Pies 680g Reg.4.79 **Spe.\$3.99**
Delicious Cream Pies 400g Reg.4.79 **Spe.\$3.99**
Pizza Pocket 3pack Reg.3.49 **Spe.\$2.49**



3⁵⁹

2⁷⁹

Sara Lee
Cheese cake 538g Strawberry & Cherry Reg.\$4.99 **Spe.\$3.59**
Oven fresh Pies 1.04kg All Flavours Reg.\$5.29 **Spe.\$3.59**
Pound Cake 304g Reg.\$3.59 **Spe.\$2.79**
Cream Pies 55g - 765g All Flavours Reg.\$6.99 **Spe.\$4.69**



Vidal Candy **6⁴⁹**
1.2kg All Flavours Reg.\$7.49 **Spe.\$6.49**



1⁸⁵
Dare
Real Sours & Real Fruit Gummies
140g-180g Reg.\$2.05 **Spe.\$1.85**

12⁷⁵

Clif
Clif Bar 68g All Flavours Reg.14.39 **Spe.\$12.75**
Clif Builders Bars 68g All Flavours Reg.16.69 **Spe.\$14.99**



Regal

- | | | |
|--|---------|----------------|
| Lion King Chocolate Surprise Eggs | \$26.59 | \$24.99 |
| Unicorns Chocolate Surprise Eggs | \$26.59 | \$24.99 |
| Incredibles 2 Chocolate Surprise Eggs | \$26.59 | \$24.99 |
| Mickey Mouse 90th Anniv. Choc. Surprise Eggs | \$26.59 | \$24.99 |
| Shimmer N Shine Choc. Surprise Eggs | \$26.59 | \$24.99 |
| Paw Patrol Chocolate Surprise Eggs | \$26.59 | \$24.99 |
| Toy Story Chocolate Surprise Eggs | \$26.59 | \$24.99 |
| Disney Cars Chocolate. Surprise Eggs | \$26.59 | \$24.99 |
| Disney Minnie Mouse Choc. Surprise Eggs | \$26.59 | \$24.99 |
| Emoji Chocolate Surprise Eggs | \$26.59 | \$24.99 |
| NHL Chocolate Surprise Eggs | \$26.59 | \$24.99 |
| Avengers Chocolate Surprise Eggs | \$26.59 | \$24.99 |
| Ultimate Spiderman Choc. Surprise Eggs | \$26.59 | \$24.99 |



Green Giant **0⁹⁹**
Canned Vegetables 341~398ml
All Kinds Reg.\$1.49 **Spe.\$0.99**



1⁹⁹
Kelloggs
Pringles 148g - 156g
All Flavours
Reg.\$2.39 **Spe.\$1.99**



1⁷⁹ **2¹⁵**
Campbells
Chunky Soup 540ml All Flavours Reg.\$3.05 **Spe.\$2.15**
Habitant Soup 796ml All Flavours Reg.\$1.89 **Spe.\$1.79**



2²⁵
Mondelez
Oreo 300g All Kinds Reg.\$3.25 **Spe.\$2.25**
Chips Ahoy 300g All Kinds Reg.\$3.25 **Spe.\$2.25**
Ritz 200g Original Only Reg.\$2.70 **Spe.\$2.25**



1⁸⁹
Brand Strategy
Popcorners 142g All Flavours Reg.\$2.05 **Spe.\$1.89**



1⁹⁹
Kettle Chips
220g All Flavours Reg.\$2.59 **Spe.\$1.99**



2⁷⁵ **1⁸⁹** **21⁹⁹**
Lindt Sprungli
Lindt Excellence Chocolate 100g All Flavours Reg.\$3.29 **Spe.\$2.75**
Lindt Classic Chocolate 100g All Flavours Reg.\$2.69 **Spe.\$1.99**
Lindor Singles 36g All Flavours Reg.\$23.25 **Spe.\$17.79**
Ricola Bag 75g All Flavours Reg.\$2.49 **Spe.\$1.89**
Ricola Sticks All Flavours Reg.\$27.69 **Spe.\$21.99**



4⁵⁹
Billy Bee
 Upside Down Squeeze 375g Reg.\$5.59 **Spe.\$4.59**
 White Bear 375g Reg.\$5.59 **Spe.\$4.59**
 White Squeeze Beehive 500g Reg.\$6.35 **Spe.\$5.35**



2¹⁹
Classico
 Pasta Sauce 410-650ml All Flavours
 Reg.\$3.79 **Spe.\$2.19**



1³⁹
C.B Powell
 Sugar Twin Packets 50's Reg.\$1.49 **Spe.\$1.39**
 Sugar Twin Packets 100's Reg.\$2.85 **Spe.\$2.59**



3⁰⁹
SPAM
 Spam Luncheon Meat 340g
 All Flavours Reg.\$3.29
Spe.\$3.09



2⁷⁹
Nestle Purina
 Wet Cat Fancy Feast 24/85g All Flavour
 Reg.\$17.45 **Spe.\$14.79**
 Tidy Cat Lightweight Litter 2.72L All Kinds
 Reg.\$8.65 **Spe.\$7.55**



21⁴⁹
Fishermans Friend
 Fishermans Friend 16's All Flavours
 Reg.\$23.99 **Spe.\$21.49**
 Fishermans Friend 24's All Flavours
 Reg.\$35.89 **Spe.\$32.49**



19⁴⁹
Cascades
 April Soft Bathroom Tissue 4's
 Reg.\$21.49 **Spe.\$19.49**
 Fiesta Paper Towel 2's
 Reg.\$19.99 **Spe.\$17.99**



15¹⁹
Tampax
 Regular 10's Reg.\$16.89 **Spe.\$15.19**
 Super 10's Reg.\$16.89 **Spe.\$15.19**
 Super Plus 10's Reg.\$16.89 **Spe.\$15.19**



3²⁹
Smuckers DLM
 PUP-peroni 75g All Flavours Reg.\$1.79 **Spe.\$1.59**
 PUP-peroni 158g All Flavours Reg.\$2.75 **Spe.\$2.45**
 Jerky Treats 170g All Flavours Reg.\$2.75 **Spe.\$2.49**
 Alley Cat 2kg Reg.\$3.69 **Spe.\$3.29**
 Meow Mix Original Choice 500g Reg.\$2.25 **Spe.\$1.89**
 Meow Mix Original Choice 2kg Reg.\$6.49 **Spe.\$5.39**
 Milkbone 113g All Flavours Reg.\$1.85 **Spe.\$1.59**



Always

Always Ultra Slender w/ Flexi-wings 18's	4.69	3.95
Always Ultra Regular Thin w/ Flexi Wings 10's	3.09	2.95
Always Ultra Overnight w Flexi Wings 14's	4.69	3.95
Always Ultra Regular w/ Flexi Wings 18's	4.69	3.95
Always Thin Ultra Long w/ Flexi wings 16's	4.69	3.95
Always Ultra Regular 22's	4.69	3.95
Always Thin Maxi Regular w/Flexi wings 10's	3.09	2.95
Always Ultra Thin Long w/ Flexi wings 14's	4.69	3.95
Always Ultra Thin Reg 16's	4.69	3.95
Always Ultra Thin Long 20's	4.69	3.95



West Mall Branch
 169 The West Mall, Etobicoke
 T(416)867-1444 / F(416)789-5013

Business Hours

Mon. 06:30 - 17:00
 Tue. 06:30 - 17:00
 Wed. 06:30 - 17:00
 Thur. 06:30 - 17:00
 Fri. 06:30 - 17:00
 Sat. 06:30 - 16:00
Sun. 11:00 - 17:00



2019 10.6~11.2

Frito Lay Canada에서는 2019년 10월 6일부터 2019년 11월 2일까지 클럽 골드 회원, 플래티넘 회원, 다이아몬드 회원에게 스페셜을 실시하오니 방문하는 판매 담당자 또는 드라이버에게 문의하세요.
 4주 한정기간 동안 프로모션이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스페셜 상품들은 OKBA프로그램 스토어에도 적용됩니다.

Take Home



Doritos 2/\$7

Take Home



Ruffles 2/\$7

Single Serve



2/\$3

Doritos / Ruffles



- 최소 주문량 \$50 ■ 다양한 제품 오더 가능 (Single Serve, Take Home, Convenience Food, etc)
- 직접 재고 관리 가능 ■ 필요할 때마다 주문 가능 (무료 배달/주문 후 이틀안에 배달 완료) ■ 충분한 유효기간 (창고에서 직접 포장)
- Single Serve는 Snack to you를 통해 주문 가능합니다.

Online at snackstoyoucanada.ca or Phone 1-866-404-8881

Happiness is simple